

‘키위뱅크(kiwibank)’ 디지털 동력으로 날개단 KB저축은행

끊임없는 디지털 혁신과 도전으로 디지털 모바일뱅크 전환에 매진하고 있는 KB저축은행의 성장이 매섭다. 2020년 론칭한 ‘키위뱅크(kiwibank) 효과’로 최근 2년 만에 대출자산 2조 원을 돌파하며 꾸준한 성장을 이뤄내고 있다. 빠른 성장에도 불구하고 건전성 지표도 역대 최고 수준이다. 이에 그치지 않고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추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에 걸맞게 조직문화에 있어서도 소통의 방식에 변화를 주며 임직원들의 디지털 마인드 셋을 돕고 있다.



시장에서 통한 ‘키위뱅크(kiwibank) 효과’

지난해 론칭한 키위뱅크는 비대면 계좌개설, 이체, 예적금 가입 및 대출 등 금융서비스를 24시간 365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플랫폼이다. 3S(Secure, Simple, Speedy)를 핵심으로 기존 앱보다 사용속도를 개선하고 모바일 접근성을 높이며 금융소비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업계 최초로 ‘비대면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해 보안성을 겸비한 실질적인 24시간 365일 금융거래 환경을 만들었다. 고객이 신분증을 촬영하여 제출하면 금융결제원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중계업무’ 데이터 연계로 신분증 발급정보만이 아니라 신분증 사진의 진위여부까지 자동으로 판독한다. 100% 자동화 리테일 프로세스 구현까지 더해지며 고객이 대출을 신청하고 실행하는 데 주말 및 휴일의 제약 없이 실시간 대출업무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일부 저신용 대출고객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 국세청 등에서 스크래핑한 소득 및 재직정보를 직원이 직접 수기 심사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이러한 백 오피스 업무까지 자동화하여 고객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직원 개입을 없애고 주말 및 휴일 같은 영업 외 시간에도 대출이 가능해져 이용편의성을 높였다. 현재 백 오피스까지 100% 자동 대출심사를 적용한 곳은 업계에서 KB저축은행이 유일하다.

또한, 업계 최초로 모바일 웹 페이지를 통해 상품가입을 할 수 있어 앱 설치 없이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 대출신청과 동시에 입출금통장까지 한 번에 개설할 수 있어 간편하다.

키위뱅크에 클라우드를 입히다

KB저축은행은 상위 업권으로의 퀀텀점프를 위해 차세대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단순히 낡은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아닌 향후 10년 이상 비즈니스 및 기술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생산성 및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KB저축은행은 KB금융그룹 클라우드 플랫폼을 기반으로 차세대 시스템을 클라우드 환경에서 구축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의 이번 차세대시스템 구축 프로젝트는 KB금융그룹의 클라우드 체제 완성을 위한 테스트베드로서도 의미가 깊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KB금융그룹은 자사 데이터 센터 내 클라우드 보유 및 전 계열사 클라우드 체제 구축이라는 목표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KB저축은행
대표이사

신 홍 섭

KB저축은행이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저축은행 부문 1위에 선정되어 매우 기쁩니다. 키위뱅크는 고객까지 실현에 중점을 둔 모바일 금융플랫폼으로 진정한 의미의 24시간 365일 공간 제약 없는 금융거래가 가능합니다. 특히 DIY(Do It Yourself)식 맞춤형도조회 서비스는 개별 고객에게 맞는 최적의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금융소비자 선택권이 향상된 개인 맞춤형 금융서비스는 키위뱅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차세대 시스템 구축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객 분석으로 초개인화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